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곰티재 호랑이**

나이 **유아 (3~5세)**

주제
• **목표** : 어려움에 처한 호랑이를 도와주는 곰단이의 용기와 은혜를 갚는 호랑이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
• **주제** : 용기, 보은

핵심어 **용기, 보은, 장날, 곰티재, 고개, 호랑이, 가시, 늑대**

한국문화
• **목표** : 장날이 되면 물건을 사고팔기 위해 넘어 다녔던 고개에 관심을 가진다.
• **요소** : 한국의 고개

한국어
• **목표** : 무섭고 두려울 때, 나오는 소리와 행동에 대한 표현을 알아본다.
• **단어** : 후들후들, 두근두근
• **표현** :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인사 나누기

배꼽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000,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곰티재 호랑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곰티재’라는 이름을 들어 본 적 있나요? 곰티재는 경상북도 청도읍에서 매전면을 이어주는 고개예요. 지금은 곰티재 터널이 뚫려서 차를 타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이 곳이 아주 깊은 산골이라서 무서운 호랑이도 나타났대요. 곰티재 고개를 넘다가 호랑이를 만나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만약에 할머니가 곰티재 고개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깜짝 놀라 기절할 것 같아요. 곰티재에서 곰단이가 호랑이를 만났대요. 곰단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곰티재 호랑이’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뽕뽕!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곱단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곱단이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지요.

“할머니, 오늘도 떡 많이 팔고 올게요.”

“에구, 어린 네가 고생이구나. 산길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곱단이는 할머니가 만든 떡을 장터에 내다팔아 살림을 도왔어요. 장터는 집에서 무척 멀었어요. 새벽에 집을 나서도 항상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지요. 특히 집에서 장으로 오갈 때는 곱티재라는 높은 고개를 넘어야 했어요.

“곱단아, 어두워지기 전에 곱티재를 넘어야 한다. 밤이 되면 고개에 무서운 늑대랑 호랑이가 나타난다는구나.”

할머니는 항상 혼자 산길을 오가는 곱단이가 걱정이었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달님과 별님이 반짝반짝 빛나서 대낮처럼 환한 걸요. 무서우면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를 부르면 되지요.”

곱단이는 일부러 더 씩씩하게 말했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떡이 늦게 팔려서 곱단이는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곱티재를 넘게 되었어요. 곱단이는 무서워서 있는 대로 목청을 높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빨리 걸었어요. 그때 멀리서 무언가가 점점 다가왔어요.

“아니, 저게 뭘까? 혹시 늑대면 어떡하지?”

곱단이는 너무 무서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며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걸어갔지요.

그때였어요.

“아이고머니!”

바로 앞에 큰 호랑이가 입을 찹 벌리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큰일났네.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나를 잡아먹으려 하네. 이를 어찌지?’

곱단이는 덜컥 겁이 났어요.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터질 것 같았지요.



이야기 들려주기

‘아, 호랑이한테 꼼짝없이 잡아먹히겠구나!’

곰단이는 벌벌 떨며 두 눈을 꼭 감았어요. 한참이 지났는데, 호랑이가 곰단이를 덮치지도 않고,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어요. 너무 조용해서, 곰단이가 살그머니 눈을 떠 보았어요. 호랑이는 아직도 입을 크게 벌린 채 곰단이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응? 호랑이가 왜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지?’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무서움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호랑이가 벌린 입속을 들여다보았지요. 자세히 보니 호랑이의 목구멍에 뾰족한 나무 가시가 박혀있었어요. 호랑이가 가시를 빼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휴, 불쌍해라. 얼마나 아팠을까?”

곰단이는 용기를 내서 호랑이 목구멍에 박힌 가시를 뽑아 주었어요. 가시를 뽑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호랑이 눈에는 그렇그렁 눈물이 고였지요.

“어흥!”



이야기 들려주기

호랑이는 가시를 뽑아 준 곱단이가 고마웠는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니 사라졌어요.

그 일이 있던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곱단이는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떡을 지난번처럼 시장에 내다 팔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이날도 깜깜한 밤에 곱티재를 넘다가, 그만 늑대를 만났지 뭐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늑대가, 늑대가 날 잡아먹으려 해요!”

그러나 이 깊은 산속에 곱단이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이제 다시는 할머니를 볼 수 없겠구나. 우리 할머니는 앞으로 누가 돌봐 드리지?’

할머니 생각을 하며 곱단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늑대가 슬금슬금 다가오자 ‘이젠 죽었구나.’ 하고 두 눈을 꼬옥 감아버렸지요.

“아후우, 아후우.”



이야기 들려주기

늑대가 곱단이를 덮치려 할 때였어요.

“어흥, 어흐응!”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바로 며칠 전 곱단이가 목에 걸린 가시를 빼내 준 그 호랑이였어요.

호랑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곱단이를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곱단이가 위험에 빠지게 되자, 도와준 것이지요. 곱단이가 눈을 떴을 때, 늑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호랑이만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호랑아, 네가 나를 구해줬구나. 정말 고마워.”

이날부터 호랑이는 매일 같이 곱티재에 앉아 곱단이를 기다렸다가 집까지 내려다주었대요. 곱단이는 호랑이 친구 덕분에 산길을 오가는 것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답니다.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곱단이는 곱티재에서 호랑이와 처음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무서워했어요. 할머니도 호랑이를 만난다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할 것 같아요. 무섭고 두려울 때는 다리가 ‘후들후들’ 가슴이 ‘두근두근’, 이렇게 표현해요. ‘후들후들’은 팔다리나 몸이 떨리는 모양이고 ‘두근두근’은 놀라서 가슴이 뛰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말해요.

옛날에는 장에 가려면 높은 산의 고개를 넘을 때가 많았대요. 곱단이라도 ‘곱티재’의 ‘재’를 넘었지요. ‘재’는 고개를 뜻해요. 그때 곱단이는 어떤 동물들을 만났나요?

네, 호랑이와 늑대였지요. 지금은 터널을 뚫거나 잘 닦인 도로가 있어, 고개를 쉽게 넘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높은 산을 걸어서 넘다 보면 무섭고 사나운 짐승들이 많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다녀야 했지요. 한국의 고개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곰티재 호랑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할머니를 도우며 살아가는 착한 곰단이는 곰티재를 넘다가 무서운 호랑이를 만났어요. 곰단이는 용기를 내어 호랑이 입속에 박힌 가시를 빼주었지요. 곰티재에서 곰단이가 늑대에게 잡아먹힐 뻔한 순간, 그 호랑이가 나타나 곰단이를 구해 주었어요. 그날부터 호랑이는 매일 곰단이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지요. 덕분에, 곰단이는 산길을 오가는 것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착한 곰단이와 무서운 호랑이가 서로 도와주며 친구가 된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기 내어 서로 돕는 멋진 친구가 되세요.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